

## 주제 : 예수님을 만난다는 일의 의미

### 오늘은 공현대축일입니다.

공현(公顯)이라는 말은 ‘공공연하게 드러나다’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특별한 일이 몇몇 사람에게만 드러나던 제한적인 공개에서, 그 대상의 제한을 두지 않고 좀 더 넓은 대상에게 그 일의 의미가 알려지게 된다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 신앙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오늘 동방박사들의 베들레헴 마구간 방문과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본 일, 사람으로 오신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는 축일입니다. 신앙에서 이 공현대축일을 기억하는 의미를 먼저 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세계에 들어오셨으니, 그분을 맞아들인 우리가 그 분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자’는 의미를 담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보았을 바로 그 모습을 함께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왔을 그 박사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기억하는 축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뵈었던 박사들이 출발한 곳이 어디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로마제국에 포함된 이스라엘 지방의 동방에 있었을 페르시아 사람들의 왕국인 파르티아 일수도 있었고, 좀 더 멀리는 지금의 인도지역까지 그 범위를 넓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 먼 지역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인도한 것은 ‘과학문명의 여러 가지 기계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 떠 있던 별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센타우르스의 알파’라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 별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4년 4개월이나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현재 개발된 우주선의 속도로 계산한다면 가는 데만 4만년이 걸리는 거리이고, 왕복하려면 8만년 걸

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하니, 동방박사들이 봤을 별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동방에서 출발했다고 하던 동방박사들은 ① 하늘에 떠 있던 별에서 어떤 모습을 봤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길을 떠났을까요? 요즘 과학의 입장으로 생각해도 참 이해하기 힘들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②)로 할 수 있는 질문은, 길을 나선 다음에는 그 별이 이 박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인도했기에, 이 박사들이 길을 잃지 않고 계속 따라갈 수 있었을까.....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문학자들이었으니, 별과 대화할 방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신기한 세 번째(③) 질문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박사들은 별이 무엇을 알려주었기에, “우리를 앞서 온 별이 알려준 아기가 바로 이 아기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별했을까요? 과학에서 얻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에게 헤로데는 자기도 그 아기를 찾아 경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그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미 헤로데는 박사들을 통하여 ‘하늘에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헛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드라마에서, 사람이 하는 약속은 깨지기 위한데 있다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헛된 모습이 일관성이 없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면 실망감을 안겨주기 딱 좋은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생긴 신앙의 싹마저 말라죽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방문했던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만났을 예수님을 최소한 한 주간에 한 번 씩은 찾아뵈는 우리는 어떤 선물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선물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돈 얘기’를 하나 하는 소리로 들으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를 듣기 직전에 내 안에 움직한 생각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돌아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똑같은 소식을 들었을 터인데, 헤로데와 동방박사들이 행동한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든지, 지금 당장 우리를 꾸짖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맺는 삶의 결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남기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고장으로 기쁘게 발걸음을 돌렸을 동방에서 왔다고 하던 박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합당한 자세를 갖도록 기도하고 청해야 할 일입니다.

### <성당에서 뭘 배우세요?> -가족37-

할머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먹을 것을 내오셨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영리했고, 할머니가 색다른 질문에는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할머니를 놀리곤 했다. 손자가 할머니를 놀릴 속셈으로 말을 꺼냈다. 할머니, 요즘도 일요일마다 성당에 나가세요?’ ‘물론 나가지.’ ‘성당에서 가서 뭘 배우세요?’ ‘지난주일 복음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잊어버렸어.’ ‘지금 기억나는 건 그 복음 말씀이 아주 좋았다는 것 뿐이란다.’ ‘알았어요.’ 그런데 본당 신부님이 강론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이젠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내가 기억하는 건 그분의 강론이 매우 감명 깊었다는 것 뿐이란다.’ ‘아주 좋았지.’ ‘그럼 할머니, 성당에 다니면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면 성당에 다녀봤자 헛일이잖아요?’ 손자가 놀리듯이 말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겨 말이 없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에 당황했다. 이윽고 할머니가 일어나더니 아이들에게 말했다. ‘애들아, 나랑 같이 부엌에 가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망태기를 내려 손자들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얼른 냇가에 가서 여기에다 물을 담아오너라’ 손자들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할머니, 저희를 놀리시는 거죠?’ 망태기에 물을 어떻게 담아요?’ ‘애들아, 아무 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 그래.’ 손자들은 몇 분도 안 되어 물에 흠뻑 젖은 망태기를 들고 돌아왔다. ‘보세요, 할머니. 망태기에는 물을 담을 수 없잖아요.’ ‘네 말이 맞다. 하지만 애들아. 그 망태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말끔해졌는지 보렴. 너희들은 얻을게 없으면 성당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지? 하지만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았니?’

###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본 당 소 식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도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사랑 안에서  
한몸이 되어 무사히 지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성가정을 본받아  
항상 기도로서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 드립니다.

#### ◎ 공동체를 위한 청원기도 안내

\* 십자가의 길: 매 주일 오후 4시 15분 본당  
(선도자 명단

1월 3일- 부회장 윤명원 요셉

1월 10일- 총무 한택중 막시모

1월 17일- 재정분과장 고영호 미카엘

1월 24일- 전례신심분과장 최희수 카타리나

1월 31일- 선교분과장 박재영 바오로)

\* 묵주기도 지향: 각 구역별로

#### ◎ 2010 년 울뜨레아 연례 쇄신평정 안내

▶일 시: 2010년 1월 29일(금) 부터 31일(주일)

▶장소 :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1617 Blythe Road, Mississauga  
905-278-5229)

▶참가비 : \$200.00 ▶문의: 울뜨레아 간사

#### ◎ 총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10년 헌금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0년 달력이 도착하였습니다. 각 구역장은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바뇨의 성모 기도 모임 안내

모임 시간이 1월 8일 오후 7시로 변경 되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입니다.

#### ◎ 성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오늘 신년 친교 식사를 성모회에서 준비했  
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 성모회 신년 모임이 2010년 1월 7일 (목)  
오후 6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 2010년 매일미사책 구입 안내

▶비용:1년치 \$48.00

▶신청 ; 박재영 선교부장

#### ◎ 성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장크리스티나 자매님의 개인 사정으로 성가대  
반주를 맡아주실 교우를 찾습니다. (0 명)

▶문의 : 성가대 단장 / 지휘자

| 2009년 12월 27일 봉헌금 내역                        |
|---------------------------------------------|
| 주일헌금 : \$ 695.00                            |
| 교 무 금 : \$                                  |
| 감 사 금 : \$ 60.00 193(20) 223(20)<br>226(20) |
| 성전건립 : \$                                   |
| 성모님동산 (누계):금주\$5 (\$5545.00 )               |
| 합 계 : \$ 755.00                             |

#### 새날, 새 삶이란?

어떤 성인께서 제자들을 모아 놓고  
밤의 어두움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 오는 것을  
그대들은 어떻게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였다.

어떤 제자는 “동이 터 오면 새날인 줄  
알지요” 하고 대답하는가 하면 또 다른 제자는  
“해가 솟아오르고 사물들을 뚜렷이 볼  
수 있으면 새날이 밝아 온 줄 알지요” 하고 대답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쑥덕거리고 있었다.

그 때 성인은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  
보았을 때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비로소 새날이 밝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다.

- <삶의 모자이크> 중 에서 -



|               |                     |
|---------------|---------------------|
| 주일 미사         | 주일 오후 5시            |
| 평일 미사         | 수 오전 10시<br>금 오후 8시 |
| 유아 세례         | 1주일 전 신청            |
| 병자 성사         | 상시                  |
| 혼인 성사         | 10개월 전 신청           |
| 예비자교리         |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   |
| 고해성사          | 미사 전 20분            |
| 축복식(차량,주택,가게) | 1주일 전 신청            |

2010-01호

2010. 1. 3.

### 주님 공현 대축일

해설 최우석

차주 해설 신계연

### 성 가

일 당 (487) 동방의 세 박사

봉 헌 (215) 영원하신 성부

성 체 (159) 세상의 참된 행복

되 장 ( 1) 나는 믿나이다

화 답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독 서

1월 3일

김흥식

김영자

1월 10일

김태석

김한순

### 봉 헌

1월 3일

박용대

박명옥

1월 10일

김흥식

김영자

### 복 사

1월 3일

안아림

김근영

1월 10일

최예슬

강수현

### 친 교

1월 3일 성모회 (신년 잔치)